

“잘 먹겠습니다!”



책읽는곰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책을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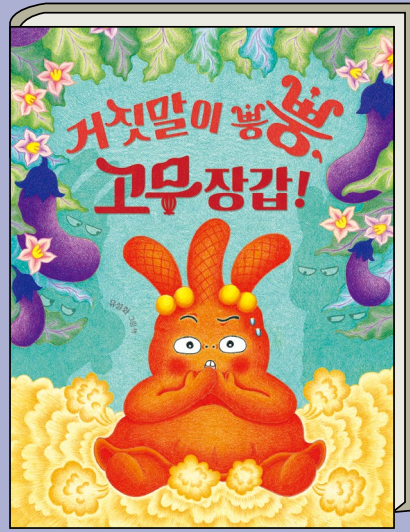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43
전화 02-332-2672-3 팩스 02-338-2672
홈페이지 www.bearbooks.co.kr
SNS Instagram @bearbooks_publishers

[책읽는곰] 거짓말이 뽕뽕, 고무장갑! 책놀이책



책놀이책





거짓말이 뽕뽕, 고무장갑!

유설화 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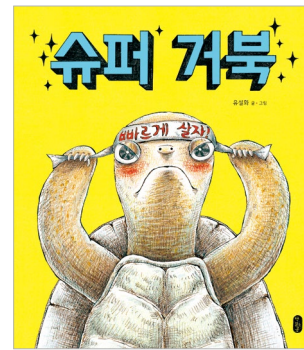


4월 5일 식목일, 장갑 초등학교에서는 나무 대신 화분에 씨앗을 심기로 했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고무장갑은 이번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화분을 돌봤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화분에서 다 싹이 나도록, 고무장갑과 때밀이 장갑 화분에서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고무장갑은 애가 탔지만, 더 열심히 화분을 돌보기로 했어요. 노래도 불러 주고, 책도 읽어 주고, 응원도 해 주었지요. 그날도 가장 먼저 학교에 와서 화분에 물을 주려는데, 드디어 싹이 났지 뭐예요! 고무장갑 화분이 아니라 때밀이 장갑 화분에 말이예요. 고무장갑은 화도 나고 속도 상한 나머지 두 화분에 붙은 이름표를 슬쩍 바꿔 놓고 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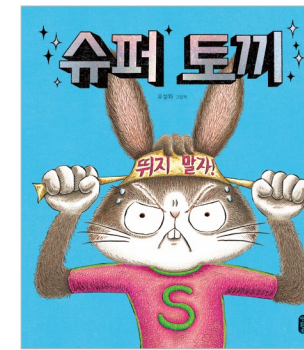
유설화 작가의 말

어린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거짓말을 한 적이 있지요. 지기 싫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번 책의 주인공 고무장갑도 그래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고무장갑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지요. 고무장갑은 과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 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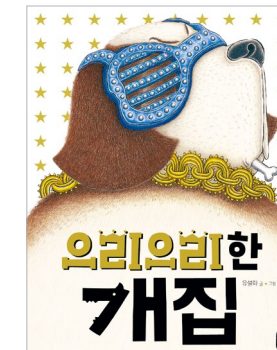
슈퍼 거북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
교과서 수록 도서



슈퍼 토끼

북스타트 책날개 선정 도서
책임어주기운동본부 읽어 주기 좋은 책



오리오리한 개집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도서
북스타트 보물상자 선정 도서
북스타트 책날개 선정 도서



밴드 브레멘

북스타트 책날개 선정 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 도서
행복한아침독서 추천 도서



잘했어, 쌍둥이 장갑!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 도서
서울시교육청 강동도서관 추천 도서
부산광역시 사상도서관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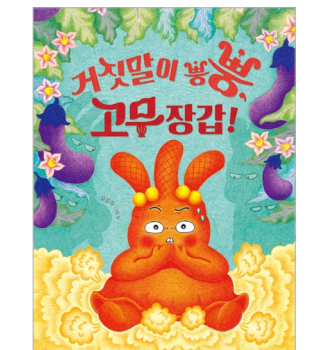
용기를 내, 비닐장갑!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 도서
서울시교육청 강동도서관 추천 도서
부산광역시 사상도서관 추천 도서



욕심은 그만, 레이스 장갑!

청주금빛도서관 추천 도서
대구통합도서관 추천 도서



거짓말이 뽕뽕, 고무장갑!



그림책을 보기 전에

1. 표지 속 고무장갑은 어떤 표정인가요? 고무장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 여러분도 거짓말한 적이 있나요? 거짓말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3. 장갑 초등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잘했어, 쌍둥이 장갑!》, 《용기를 내, 비닐 장갑!》, 《욕심은 그만, 레이스 장갑!》을 읽어 봤나요? 기억에 남는 장갑 친구들이 있나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누구보다 열심히 화분을 돌봤는데 싹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고무장갑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2. 고무장갑이 제 화분과 때밀이 장갑 화분의 이름표를 바꿔 놓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3. 가족 장갑이 고무장갑의 이름표가 찢어져 있는 까닭을 물었을 때, 고무장갑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은 고무장갑의 기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5. 여러분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음속에 꼭꼭 담아 둔 거짓말이 있나요?

책놀이 1 장갑 친구들이 한 말은?

장갑 초등학교 친구들이 씨앗을 심기로 했어요. 장갑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저마다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해서 말풍선에 적어 볼까요?



오늘은 나무 심는 날, 식목일이예요.
우리는 나무 대신 씨앗을 심을 거예요.

책놀이 2 고무장갑의 마음은?

다음 상황에서 고무장갑의 마음이 어땠는지 적어 보세요.



고무장갑의 마음은?

고무장갑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화분을 돌봤지만,
마지막까지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고무장갑의 마음은?

고무장갑은 제 화분과 때밀이장갑 화분에
붙은 이름표를 슬쩍 바꿔 놓았어요.



고무장갑의 마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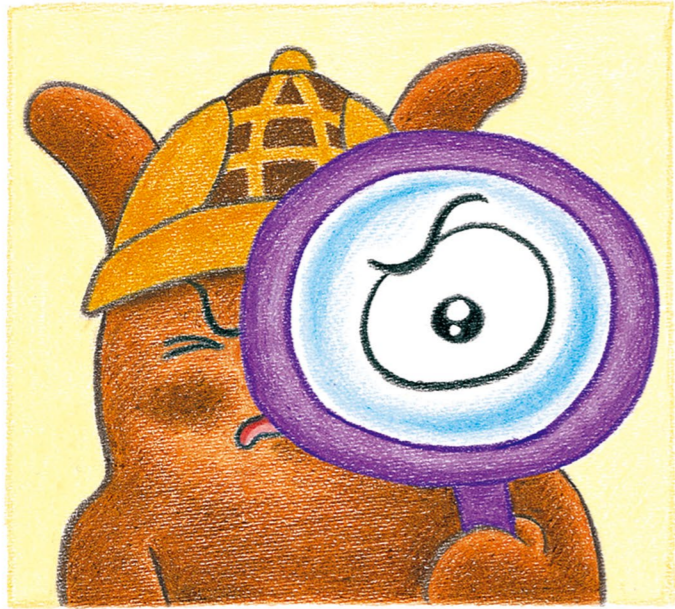
드디어 화분에 싹이 났는데, 고무장갑 화분이 아니라
때밀이장갑 화분이었어요.



고무장갑의 마음은?

고무장갑이 이름표를 바꾼 줄 모르는 친구들은
화분에 싹이 난 걸 축하해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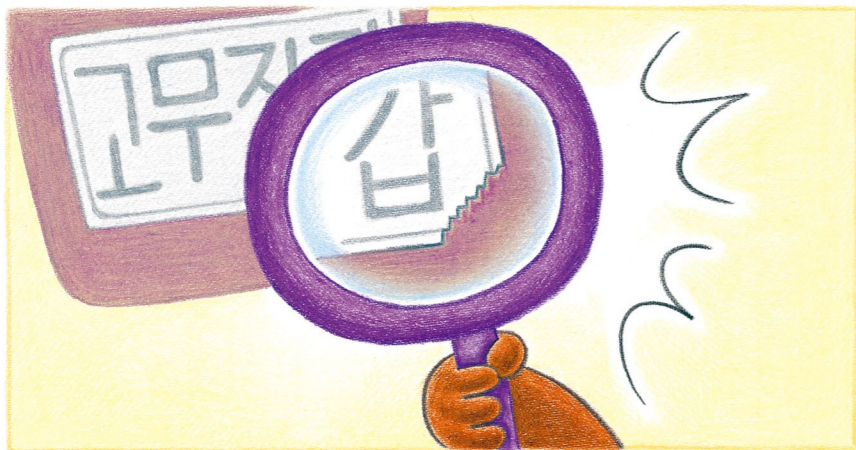
만약 여러분이 고무장갑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적어 보세요.



가족 장갑이 고무장갑의 화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물었어요.

“이름표 끝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어. 왜지?”

가족 장갑은 그저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인데,
고무장갑에게는 다그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가 고무장갑이라면 거짓말을 할 거야.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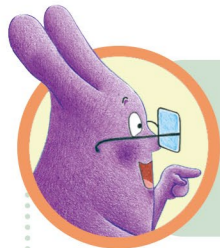
내가 고무장갑이라면 사실대로 털어놓을 거야. 왜냐하면...



책놀이 4 속마음 털어놓기

여러분도 고무장갑처럼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해 본 일에 표시해 볼까요?

- 친구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 가족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 선생님께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 모르는 것을 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 아는 것을 모른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 소문을 부풀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 거짓말을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혹시 아직 털어놓지 못한 거짓말이 있나요?
마음속에 꼭꼭 담아 두었던 말을 꺼내, 100자 원고지에 적어 볼까요?

내		마	음	을		털	어	놓	고
싶	은		사	람	은				



장갑 초등학교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아래 질문에 답해 볼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갑은?

가장 웃긴 장갑은?

꼭 만나 보고 싶은 장갑은?

가장 귀여운 장갑은?

나랑 가장 닮은 장갑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장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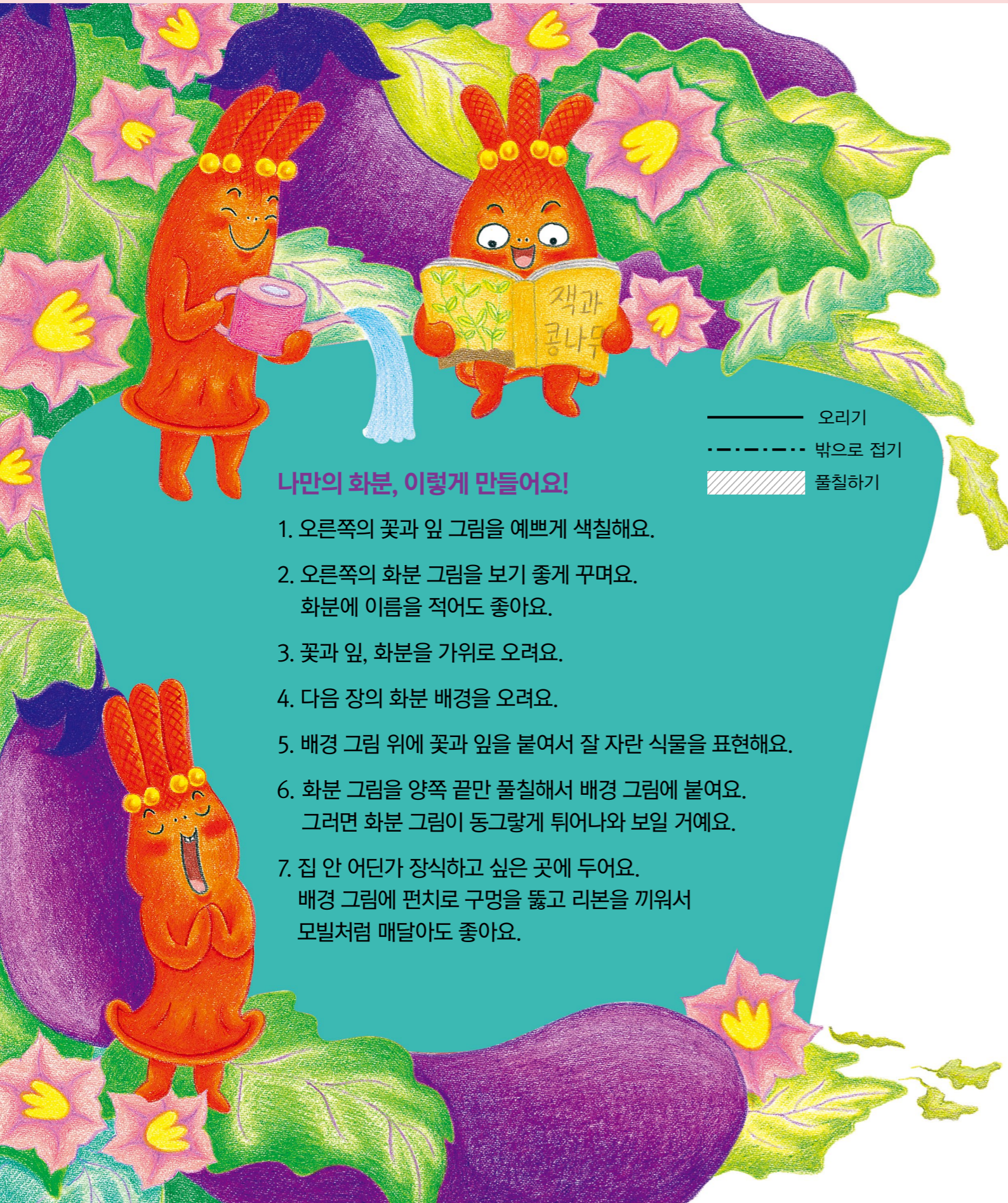
가장 알미운 장갑은?

'장갑 초등학교' 시리즈 다음 주인공으로 만나고 싶은 장갑은?



책놀이 6 나만의 화분 만들기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 볼까요?



나만의 화분, 이렇게 만들어요!

1. 오른쪽의 꽃과 잎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요.
2. 오른쪽의 화분 그림을 보기 좋게 꾸며요.
화분에 이름을 적어도 좋아요.
3. 꽃과 잎, 화분을 가위로 오려요.
4. 다음 장의 화분 배경을 오려요.
5. 배경 그림 위에 꽃과 잎을 붙여서 잘 자란 식물을 표현해요.
6. 화분 그림을 양쪽 끝만 풀칠해서 배경 그림에 붙여요.
그러면 화분 그림이 동그랗게 튀어나와 보일 거예요.
7. 집 안 어딘가 장식하고 싶은 곳에 두어요.
배경 그림에 펀치로 구멍을 뚫고 리본을 끼워서
모빌처럼 매달아도 좋아요.

